

# [재경조찬] 2019.5.13 월요일

## FOCUS ON

1.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 : 저우하오(九號)로봇유한회사의 과학창업판 IPO 심사 '중지'. 4월 상순, 일부 투자자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관련 요구에 따라 추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IPO 심사 중지. 과학창업판 IPO 심사 절차에서 기업들에게 발송된 질의서와 답변서를 살펴볼 때 **과거에 지분양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중점 질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됨.**
2. **상하이문화관광국** :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관광숙박업소가 주동적으로 치솔·빗·면도기 등 1회용 일용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시민과 관광객도 제보 가능.
3. **경제관찰보** : 복수의 투자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들이 투자한 여러개의 플랫폼이 온라인 사기 플랫폼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서비스 업체들은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위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투자자들은 결제서비스업체가 해당 플랫폼의 계좌와 계좌 내 자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

## 1. 거시경제

- 1.1 **국자위 비서장 평화강(彭華崗)** : 일전에 국무원 국유기업개혁지도소조가 제 4기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100여개의 국유기업이 포함된 추가 명단이 곧 발표될 예정.** 혼합소유제 개혁을 이미 실시한 국유기업 중 70%가 중앙기업이며 지난해 총 2,880개의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이 혼합소유제 개혁 실시.
- 1.2 **중공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 : <**국가 생태문명 시범구(하이난[海南]) 실시 방안**> 발표. 시범구 사업을 통해 하이난(海南)성의 생태환경을 진일보 개선하고 2020년까지 시범구 건설 사업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이해정륙(以海定陸), 육해통합(陸海統籌)의 국토공간 보호 및 개발 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

1.3 증상중국(券商中國) : 과학창업판 주식 투자 조건 진일보 보완 예정. 일부 투자자들은 과학창업판 투자 권한 개통을 위해 증권사 현장 창구 방문 필요. 이미 권한을 개통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며 증권사가 투자자 적당성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출한 투자자를 위하여 과학창업판 주식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1.4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 : 미국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던 중국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기업으로 자금을 이전시키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 강화를 투자 철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 2. 부동산

2.1 핑파이뉴스(澎湃新聞) : 2018년 176개 대표 부동산개발업체의 총 매출액이 2017년 대비 27.2% 증가한 4조 7,972억을 기록했으며 총 순이익은 2017년 대비 21.4% 증가한 6,291 억위안 기록. 매출액이 다소 증가한 반면에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순이익 성장율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둔화.

## 3. 증시

3.1 재경조찬(財經早餐) : 3월 12일 심사 개시 이래, 5월 10일을 기준으로 증감회 제 18기 주식발행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7개 기업 중 25개 기업이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통과율이 92.59%에 도달.

3.2 증권시보(證券時報) : 5.1절 연휴 이후 첫 주, 증시에서 유출된 복상자금은 174.1 억위안으로 사상 두번째로 큰 주간 유출규모 기록. 복상자금이 보유한 철강업 주식 수는 5주 연속 감소.

## 4. 산업 관찰

4.1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 웨이보 공중계정 : 왕이(網易) CEO 덩레이(丁磊),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그룹 방문. 덩레이(丁磊) CEO는 미래에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臺)그룹과 협력하여 보다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

4.2 가이스치차(盖世汽車) : 복수의 기업이 **영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주동적인 전국 전기차 초고속 충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연합성명문 발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는 몇개에 불과하며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Supercharger 는 테슬라 차량 전용 충전설비로 통계 대상에서 제외시켰음.

4.3 36커(36氦) : eBay, 영국 울버햄프턴(Wolverhampton)에 **오프라인 컨셉트 스토어 오픈**. 40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이미 입점을 신청한 상태이며 1 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소매 연결 테스트 진행 예정.

4.4 베이징상보(北京商報) : LVMH, **리한나와 럭셔리 패션 브랜드 FENTY 출시 공식화**. 브랜드 로고도 공개. FENTY 는 LVMH 가 1987 년 크리스찬 라크로아 꾸뛰르 하우스를 재오픈한지 32 년만의 사실상 신규 브랜드 런칭이며 리한나는 LVMH 의 첫번째 흑인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5. 산업 데이터

5.1 인민망(人民網) : **차이나타워(中國鐵塔), 지난 2 년간 승안신구(雄安新區)에 1,500 여개의 전송탑과 170 여개의 5G 통신기지국을 건설하여** 국내 최초로 5G 실내 분포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과 5G 의 고효율적 분포를 위한 기술애로 해결.

5.2 <닛케이 아시안 리뷰> : 올해 3 월을 기준으로 지난 10 년간 **1,679 개 아시아 기업의 시가총액이 기존에 비해 10 배로 늘어났으며** 전세계 “10 배주” 기업의 반수 이상 차지. 이 숫자는 중동, 중앙아시아 및 일본의 기업을 배제시킨 숫자이며 그중에서 중국은 334 개의 10 배주 회사를 보유함으로써 2 위 차지.

5.3 유엔 식량 농업 기구 : 2019 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18 년 대비 2.7% 증가한 27.22 억톤에 도달함으로써 신기록 갱신**. 2019 년 세계 곡물 이용량 또한 1.5% 증가해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 세계 곡물 소비량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미 소비량은 보다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잡곡에 대한 수요 급증.

**5.4 MySteel :** 지난주 금요일, **국내 철강재 현물가격 종합지수가 149.77 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41% 하락.**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철강재 원가가 상승한 반면에 철강재 현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철업체들의 이윤이 축소되었으나 생산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철강재 가격이 약세를 이어갈 전망.

## 6. 기업 뉴스

**6.1 36 커(36氵) :** 2019년 수저우(蘇州) 인공지능제품응용박람회에서 **디디(滴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콜택시 단속 방안 공개.** 차량 내부 음성, GPS 위치, 얼굴 식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전기사에 대한 감시 강화 가능.

## 7. 자본 동향

**7.1** 지난주 금요일, 위안화 역외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0.1598% 상승한 6.8118 에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12% 하락. 위안화 중간가격은 0.3650% 하락한 6.7912 를 기록했고, 주간으로는 0.93% 하락.

**7.2 상하이지분위탁거래센터 :** N 판 224 개사, E 판 452 개사, Q 판 9,184 개사를 포함하여 총 9,857 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기업 수는 전주 대비 3개 증가.**

## 8. 국제 뉴스

**8.1**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4% 상승한 25942.37 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2.12% 하락.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7% 상승한 2881.4 로 장을 끝냈고, 주간으로는 2.18% 하락.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8% 상승한 7916.94 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3.03% 하락.

**8.2**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 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0.2% 오른 1287.40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5% 상승.**

**8.3**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 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일대비 배

럴당 0.06% 하락한 61.66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45% 하락. 7 월물 북해산브렌트유는 전일대비 배럴당 0.33% 상승한 70.62 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32% 하락.